

늘어가는 광주·전남... ‘일하는 노년’ 늘고 청년층은 줄었다

65세 이상 취업자 24만명 ‘역대 최대’...노년 3명 중 1명 ‘현역’ 전남, 청년층 비중 최저·노년층 최고...노후 준비 여전히 과제

광주·전남 노년층 인구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일하는 노년’ 역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가데이터처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에 따르면 2024년 11월1일 기준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는 1000만명으로 총인구의 20.1%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5.3%(50만4000명) 증가했다. 청년층(15~39세) 인구는 1.6% 줄어든 1440만명, 중장년층(40~64세)은 0.7% 감소한 2003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 노년층 인구는 광주 24만9000명·전남 46만5000명 등 71만4000명으로, 전년(68만5000명)보다 4.2%(2만9000명) 늘었다. 광주는 5.5%(1만3000명), 전남은 3.6%(1만6000명) 증가했다.

반면, 광주·전남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1년 새 줄었다.

광주 청년층은 43만9000명에서 42만8000명으로 2.5%(1만1000명) 감소했고, 전남은 39만6000명에서 38만7000명으로 2.3%(9000명) 줄었다.

중장년층도 광주 6000명(57만4000→56만8000명), 전남 7000명(68만4000→67만7000명) 감소했다.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청년층 비중(22.7%)이 가장 낮고, 노년층 비중(27.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노년층 등록 취업자는 24만명을 넘겼

다. 지역 노년 취업자는 2022년 20만명, 2023년 21만9000명 등 해마다 늘고 있다. 등록 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 등 공공기관에 신고(가입)된 행정 자료를 활용해 파악된 임금근로자 또는 비임금근로자를 말한다.

청년층 등록 취업자는 2022년 46만2000명, 2023년 45만명, 지난해 43만9000명 등으로 줄었다. 중장년층도 같은 기간 84만8000명→84만5000명→84만명 등으로 감소했다.

노년층 인구 가운데 등록 취업자 비중은 광주 36.6%·전남 32.0%로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노년층 3명 중 1명이 ‘현역’인 셈이다.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를 보면 60세 이상에게 생활비 마련 방법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광주 76.6%·전남 84.8%가 본인과 배우자가 부담한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를 시작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답변율이었다. 2년 전 조사 때보다는 광주 3.5%포인트, 전남 6.5%포인트 늘었다. ‘자녀 또는 친척’이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답변은 광주 14.5%·전남 4.7%로, 전남은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일하는 노년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들의 노후 준비 상황은 그리 밝지 않다. 19세 이상 가구주 가운데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비중은 광주 79.9%·전남 75.4%로, 국민연금(광주 57.6%·전남 54.2%)이 주된 수단이었다. 광주 5명 중 1명, 전남 4명 중 1명꼴로는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오는 11일 치러지는 4개월 임기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3선 의원 4명이 출마해 4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왼쪽부터 출마 기자회견에 나선 진성준·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 /연합뉴스

민주 원내대표 보선 4파전...위기 수습·권력 지형 재편 갈림길

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출사표...대세 없는 혼전 양상

4개월 ‘시한부’ 임기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이상 3선) 의원 간의 4파전으로 치러진다.

오는 11일 선거를 앞두고 뚜렷한 대세론 없이 혼전 양상이 펼쳐지는 가운데, 후보들은 일제히 ‘위기 수습 적임자론’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번 선거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불명에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치러진다. 설상가상으로 강선우 의원의 공천 현금 의혹과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 등 당 안팎의 악재가 겹치

면서 차기 원내사령탑의 위기 관리 능력이 최우선 검증 과제로 떠올랐다.

후보별 차별화 전략도 눈에 띈다. 박정·진성준 의원은 5월 예정된 정기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배수진을 쳤다.

4개월 잔여 임기 동안 사심 없이 당 수습과 쇄신에만 전념하겠다는 의지다. 백혜련 의원은 시스템 정비를 통한 지방선거 승리 기반 마련을, 한병도 의원은 위기를 성과로 반전시키는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와의 관계 설정도 핵심 변수다. 김

전 원내대표가 정 대표의 개혁 드라이브를 제어하는 균형추 역할을 했던 만큼, 차기 원내대표 역시 당청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도 당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번 선거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맞물려 당내 권력 지형 재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선거 결과의 20%를 차지하는 권리당원의 표심도 관건이다.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진명(진짜 이재명)’ 후보를 통해 정 대표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 대표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단순 업무는 AI가, 공무원은 시민 위한 행정 집중”

광주시, AI 행정혁신 시동

광주시가 오는 11일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발맞춰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 전반에 도입한다.

단순 반복 업무를 AI에 맡겨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는 대신, 행정력을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골자로 한 AI 기본법 취지를 반영해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신설, 공직 사회 AI 활용 문화 정착 등을 핵심 과제로 담고 있다.

시는 이미 업무자동화(RPA) 기술을 도입해 구 내식당 식수 인원 집계와 각종 위원회 중북 위촉 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월 100시간 이상 걸리던 수작업이 2시간 안팎으로 대폭 줄어들어 연간 1200시간 이상의 업무 시간 절감 효과를 봤다고 전했다.

지난달에는 복잡한 관외 출장비 정산을 돕는 ‘AI 여비문’을 선보여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 시스템은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직원들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자체 개발한 것으로, 행정 비효율을 견어낸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시는 단기 처방을 넘어 중장기적인 AI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행정 데이터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외부망과 분리된 ‘자체 소형언어모델(sLLM)’을 구축, 보안성이 강화된 행정 전용 AI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직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단계별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을 ‘AI 행정 전문가’로 육성한다.

박해미 광주시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이번 혁신안은 공공부문이 AI 활용의 모범 기준을 세우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라며 “업무 효율화로 절감된 시간과 역량을 오롯이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로 환원해 ‘일 잘하는 광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배우자 영종도 땅 투기 의혹

주진우 의원 제기...보좌진 상호감시·삭발 강요 의혹 경찰 고발돼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해훈 전 의원이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과거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사면초가에 몰렸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일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영세씨가 인천국제공항 개항 1년 전 영종도 일대 잡종지 6612㎡(2000여평)를 매입해 6년 뒤 3배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남겼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 1월 인천 중구 중산동 땅을 매입했으며, 이는 공항 개항을 불과 1년 2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해당 토지는 2006년 한국토지공사 등에 39억2100만원에 수용됐다. 주 의원은 “서울에 사는 부부가 개발 호재를 노린 명백한 투기”라고 비판했다.

과거 이 후보자가 “무슬림은 명령이 내려오면 살인과 테러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며 이슬람 혐오 발언을 했다는 사실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갑질’ 의혹과 관련한 법적 공방도 본격화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이 후보자를 직권남용·강요·협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추가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이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비판 댓글 삭제와 상호 감시를 지시하고, 구의원들에게 삭발을 강요하는 등 역사상 최악의 갑질 행각이 드러났다”며 즉각적인 경정을 촉구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인턴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된 상태다. 이 후보자 측은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남도, 초등 1·2학년 과일간식 지원 확대

연간 30회 국산 제철 과일 제공

전남도의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국비 사업 전환을 통해 명칭을 ‘어린이 과일간식’으로 변경하고 대상을 확대한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도내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이용 초교생 1·2학년에게 연간 30회에 걸쳐 국산 제철 과일이 제공된다. 지난해까지 돌봄교실 학생들에게 지원됐던 과일간식 제공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확대됐다.

사업 체계가 개편되면서 그동안 전남도가 일괄 선정하던 공급업체를 올해부터 시·군 단위에서 사업자를 선정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전남도는 이번 국비사업 전환으로 사업의 지속성이 높아지고 국산 과일 소비 확대와 지역 농가 소득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칙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겨울철 일등보양식

청자골 자라양식장 창업 20주년 특별할인



고단백, 면역력 최고!

자라 엑기스 2개월분

① (12kg + 한약재)
② (12kg + 마늘 생강 대추)

~~70만원~~ → 60만원 (10만원 할인)

자라 요리 전문(단체모임환영)

자라탕 용봉탕 / 방생자라 판매



청자골 자라 양식장

061-434-0067 / 010-3635-3362
강진군 성전면 별미로 297-52